

홈 > 뉴스 > 지역 > 군산

‘2017 군산서초 꿈누리 행복축제’ 개최

8개 체험부스 및 학교교육활동 내용 및 작품 전시

2017년 11월 03일 (금) 15:29:19

이수갑 lsk7990@hanmail.net



전라북도교육청이 지정한 혁신학교 및 원도심학교인 군산서초등학교(교장 김영미)는 지난 3일 ‘2017 꿈누리 행복축제’를 개최해 2018년, 2019년 예비학부모와 서초교 학부모들을 초대했다.

축제에서는 생태 및 감성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8개 체험부스를 운영했는데, ‘생태체험마당’에서는 수경 테라리움을 비롯한 4개 과정을, ‘에코체험마당’에서는 천연비누와 천연 석고방향제 제작을, ‘어울 마당’에서는 페이스페인팅 체험 및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.

전성아 학부모는 “‘숲꿈 프로젝트’와 학년별 ‘스몰스쿨제’를 통한 생태 및 환경교육 실적 물을 감상하기도 하고 학부모를 위한 자연친화적인 다양한 감성체험을 경험할 수 있어서 기뻐다”고 밝혔다.

또한 “교사들의 노고와 지도력에 감사드리고 우리 모두가 군산서초 교육가족이라는 게 자랑스럽고 행복하다”고 덧붙였다.

김영미 교장은 "이번 꿈누리 행복축제를 통해 생태 및 환경교육과 더불어 자연친화적인 미래인재가 육성되고 있는 현장을 모든 학부모들께서 즐기고 체험하는 기회였기를 바라고, 2018년도에도 올해 성과를 바탕으로 교육공동체가 하나가 돼 혁신 및 원도심학교 취지에 어울리는 창의적인 학교운동을 해나갈 것"을 약속했다./군산=이수갑 기자